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

혁명사상 만세!

조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04호 [루계 제25713호] 주제 106 (2017)년 7월 23일 (일요일)

당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후손만대 영원불멸할 성스러운 혁명생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면불휴의 헌신과 인류사적공적으로 20세기를 빛내이시였다

민족의 어버이이시며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그리움은 세월이 갈수록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 더욱 간직해져고 있다.

일제의 총칼아래 신음하면서 우리 조국과 혁명 세계주주화위업실현의 앞길을 밝혀주는 고귀한 사상과 윤리치심을 안겨주시고 정력적인 령도로 주체혁명의 새시대를 펼치시였다.

제주 15(1926)년 10월 17일 태어난 제국주의 통제를 성모임에서 하신 보고 «제국주의를 탐도하자»를 평화로 하신 때로부터 한 70년 상위대한 수령님께서 절필하신 1만 800여전에 달하는 불후의 고전적 저작들은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대파전시적인 국보이며 세계자주화위업현현을 위한 인류공동의 상사상계부이다.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에 관한 리론으로부터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 자주, 자립, 자위의 강국건설사상과 반제반미투쟁전략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발전의 예시기, 예단마다 제시하신 사상과 돈들은 세기와 세기

를 이어 우리 민들은 물론 창문과 정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전보적인 윤리를 한길을 밝혀주고 있다.

백두밀원에서 선군혁명의 시천을 열고 풍물과 풍물에 푸른수로 흘러나오고, 우리 혁명의 행보이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행도의 전기

간 군대강화에 설치적인 힘을 넣으시여 우리 조국을 불태우는 군사강국으로 일떠세우시였다.

해방지후 찾으시여 할 뜻들이 많았지만 평생길을 먼저 걸으시며 우리 나라 평기봉법의 새 역사사를 펼쳐주시고 혁명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45만 6,670여리에 걸쳐 표고화인 평 70성 상위대한 수령님께서 절필하신 1만 800여전에 달하는 불후의 고전적 저작들은 해방후 20년만에 보는 고

132여개의 민군부대, 구분대들을 찾으신 백두령장의 전선길이 있어 일당백의 혁명무력과 자위적

국방방위군의 굳건한 토대가 마련될 수 있었다.

1960년대에 혁명무력 강화를 위하여 8만 1,370여리의 도로망을 50,000여개의 민군부대, 구분대를 헤쳐나가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평도따라 우리 민족은 빠르게 민족의 새 나라를 일떠세웠으며 전후에도 혁명의 고비를 역서를 펼쳐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봉기까지 위대한 5대 혁명방침을 천명하시면서 1970년대에도 민족의 정치군사적위력을 굳건히 다지기 위한 5대 혁명방침을 천명하시는 혁명발전의 예시기, 예단마다 제시마다 제시하신 사상과 돈들은 세기와 세기

를 이어 우리 민들은 물론 창문과 정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전보적인 윤리를 한길을 밝혀주고 있다.

백두밀원에서 선군혁명의 시천을 열고 풍물과 풍물에 푸른수로 흘러나오고, 우리 혁명의 행보이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행도의 전기

인민들을 찾아 끊임없이 이어가신 현지지도로 정의 총연장거리는 백두산에서 한나산까지 301회나 왕복한 것과 같고 지구를 14바퀴반이나

돈것과 맞먹는 거리이다.

오늘도 만경대 강길길에 헤아려 찾는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은 해방후 20년만에 보는 고

항을 지적에 두시고 강선의 도로계

급부터 찾으시여 새 조국건설에로

힘 있게 봄터 일으키신 위대한

수령님의 위인적품모를 가슴드럽게

새겨 암고있다.

주체의 사회주의건설위업의 승리

를 향한 전인민들의 길을 앞당기면서

제2차 세계대전에서 16개의

나라들을 찾고찾으시며 사회주의위

업, 세계 혁명위업수행에 불멸의

행진을 하시였다.

이 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06차례에 걸친 52만 2,000km의

외교로 우편우편으로 미중유의

창조하며 조국청사와 인류정치사에서

영구불멸할 업적을 쌓아온 혁명가

공헌을 하시였다.

제73(1984)년 5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 진행하신 유럽방문은

세계 수많은 나라 지도자를

사회활동가들, 언론계 인사들, 혁명적 인

민들로부터 환경같이 «세계혁명사에서

한란히 기록될 위대한 사변», «온

세계를 뒤흔들어놓은 격동적인 사

변»이라는 격찬을 불러일으켰다.

환영의 꽃과 함께 세계에서

2 464개의 통과역과 6만 2,500리

나 되는 기나긴 로정, 거의 50일간에 걸친 외국방문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밟으신 혜땅 나라 당과 정부지도자들, 인민들의 뜨거운 환대와 친영은 유럽백사에는 물론 그 어느 대륙의 역사에서도 있어 본적이 없었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시야로 전세계가 우리 령도받는 자주정치의 원로, 위인종의 위인이 실을 뿐이며 확증해 주고 있다.

격통하는 20세기의 중심에서 우리 조국을 온 세상에 알리고자 했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경영을 외국 손님들을 만나주시고 자주성을 확고한 정책으로 130여개 나라의 국가수단 및 정부수단, 당수들을 400여명을 비롯하여 연 7만여명의 외국 손님들을 만나주시고 자주성을 확고화하는 세계인민들이 단결을 강화해 나가는데 나서는 귀중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

주체 13(1994)년 6월 30℃ 이상의 무더위속에서 인민들이 보면 마음과 함께 헤아려온 20여년 날마다 바람과 흙을 가득한 경관을 찾고 찾으시며 새 사회건설에 열쳐나선 혁명적인 인들의 두

생에 사실없는 지원을 주시였다.

이 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06차례에 걸친 52만 2,000km의 외국방문의 길에서 16개의

나라들을 찾고찾으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팡이를 송용차에 두시고 불편하신

길을 헤쳐나온 일군들은 운전금당

행동장의 눈을 끌었으며

제73(1984)년 5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 진행하신 유럽방문은

세계 수많은 나라 지도자를

사회활동가들, 언론계 인사들, 혁명적 인

민들로부터 환경같이 «세계혁명사에서

한란히 기록될 위대한 사변», «온

세계를 뒤흔들어놓은 격동적인 사

변»이라는 격찬을 불러일으켰다.

환영의 꽃과 함께 세계에서

2 464개의 통과역과 6만 2,500리

나 되는 기나긴 로정, 거의 50일간에

에 걸친 외국방문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밟으신 혜땅 나라 당과

정부지도자들, 인민들의 뜨거운 환대

와 친영은 유럽백사에는 물론 그 어느

대륙의 역사에서도 있어 본적이

없었다.

또한 과학기술을 증시하고 앞세워 끌어당기는 혁명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세계적인 혁명가로써 우리 령도받는 자주정치의 원로, 위인종의 위인이 실을 뿐이며 확증해 주고 있다.

그리하여 그 어떤 때도 원

만히 수리할 수 있는 확고한 물

질기술적도대를 마련해 놓았다.

이들은 쇠마을과 예비부속물

들을 비롯한 베수리준비를 빙

름없이 갖추어놓고 만리미속도

창조업률을 세우기 위해 빙

수리기일을 지난 시기보다 5일

이상이나 앞당기는 혁신을 일

으켰다. 그리하여 난간 때수리

를 2배 이상 늘려 수리하였다.

당조직에서는 화선식정지사

임소에서 지난 6월 1일 오후까지

지난 5월 30일까지 막히거나

제우수리로 환경을

정제하는 원료를

제작하는 원료를

잊지 말자, 위대한 사랑으로 이어가신 화선천리

지금으로부터 64년전 7월 227일은 3년간의 경쟁에서 함께 향해를 거듭하여 만신창이 된 물을 미제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부풀려 품고 경전철에 도장을 찍은 날이다. 그 뒷수 없는 수치로 하여 7. 27. 이날은 미제에게 있어서 평생에 치유의 날이다.

하지만 또 두산대국의 7. 27은 위대한 승리자들의 환희의 날, 추억의 날이다. 위대한 대국의 창건자들은 이 날은 온 나라 군대와 민족은 전승의 풍성을 물들이는 축포의 불보라를 눈물롭게 추억하며 화선천리를 사랑과 성으로 수놓아가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 모슬을 승용한 경정 후에 우리였다.

그렇다. 조국해방전쟁의 역사적 승리는 『무기민동』을 믿은 미제의 부骤로 군사기관에 대한 배경백승의 청탁의 명장이 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同志의 타워한 벙도와 철제적인 군사학의 승리였으며 전사들에게 대한 우리 수령님의 사랑이 애아온 위대한 승리이다.

*

조국해방전쟁시기 나아린 인민군 전사에게 포로된 미제침략군 장교는 백수침체의 전쟁역사를 가진 미국이 해방전투 및 해방에 되지 않는 청소한 조선파의 대결에서 만신창이 되고 있는 사설은 하느님도 영원히 풀 수 없는 수수께끼라고 개탄하였다. 전쟁승리의 인연을 물러 풀지 못한 수수께끼였다. 그에 대답을 주는 이 애들이 있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클하고 세련된 빙도로 전당포 전체 인민을 하나의 정치적 력량으로 끌어세우시며 조국해방전쟁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상태를 잘못 고든에 『무식』이나, 『불행』이나 하여 흐소리를 치면 미제가 어느정도 만족적인 존재로 되어 세계인민의 평소로는 사전에 예상되는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자 노력해보려고 단단마사작약을 하던 미제는 경쟁의 두번에 해에 들어서면서 군도로 출발해온 모든 기술기재와 병력을 내몰아 전쟁전에서 만족적인 기회는 한 번도 준비하였다.

이에 따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본전선과 동시에 향해에 대한 방향을 굳건히 하면서 적을 대항해 전쟁에 참가

기 위한 기동방어와 반격전을

적국 범위에 대한 방향을 새우시고

목소 전선에 나가시어 병사들의 전투사기를 높여주었다.

미제의 상표기도가 도입화되고 있

던 3월 중순 어느날이었다.

자정도 넓은 바위 위에 한

수령님께서는 그에 포를

닦는 깨끗에 대하여 물으시었다.

제 머리카락이 몇모리인 줄은 몰라

도 표에 대해서는 모르는것이 없다고

는 자부hood로 병사는 날듯이 두팔을

모으며 활기에 넘치게 대답하였다.

첫째로 표의 성능을 보증하기 위

한것이고 끝에 민족의 결전에서

갖추어 런던드는 미제침략자들을

조리 쓰러버리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요. 언제나 그렇게 준

비되어 있어야 하오. 그래서 우리

의 안을 더 풀려는 지어낼 수 있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시종 행복

의 소금을 짐작 못하시는지.

전사들을 그 무엇과도 비견할 수

없는 귀중한 혁

명종통이었다.

전사들의 얼굴도 행복과 기쁨으로

빛났다. 풍경에도 그려온 어버이수령님을

최진선에서 만나면서 전사들에게

있어서 보다 더 큰 표창과 행복이 어

디 있따.

불타는 열기로 충만된 그들을

돌려보시며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말씀하시었다.

나는 동포들과 언제나 이렇게 같

이 있고 싶소. 이해가 잘 풀려면,

전사들의 두봉로는 뜨거운것이 하

열없이 풀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포진지를 떠나

실 때마다 수령님께서 한발자국

을 기시면 전사들도 한발자국 따라섰고

수령님께서 두발자국 끝까지 전사

도 두발자국 따라섰다. 헤어지기

서 운데하는 전사들을 두고 차마 말길이

떼어지지 않으시면서 수령님께서는 절

도록 차례를 뜯어 풀하시였다.

동포들, 모두 건강해야 하오.

수령님의 목소리는 찾어있었다.

어버이 수령님께서 한 구불대를

찾으셨을 때의 일이다.

그 구불대에는 바탕장까지 나갔다가

돌아온 구데원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 악내에 많이 막아보지 못한

어린 대원도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때 군인들에

제 군화를 벗어 하시고 말이 부르트

지 않았는가, 군화가 해지지 않아

어린 대원도 있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전체 대원에게

<p

우리 당의 후대 사랑 넘치는 교장

재령군

래립고급중학교를 돌아보고

재령리라고 하면 농사를 짓는 고장으로 소문이 났다. 그런 재령리에 최근 또 하나의 자랑이 생겼다. 우리 당의 후대 사랑을 진실로 발들어 가는 철원 애국자들에 대한 사랑이다.

리자체의 힘으로 빛 물어지게 일렉세운 재령고급중학교의 초급반교사가 그것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후텁게 새겨주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길 정을 통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에서 교육사업을 자기 사업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언제나 깊은 관심을 갖고려면 교육부문에서 기제되며 문제들을 책임적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아담하면서도 현대미가 끊기고는 2층짜리 건물, 아이들의 글

소리, 활동의 울려 나오는 창문,

기기로운 꽃들로 무성한 나

루들이 그려진 교재들과 반듯한

운동장...

첫눈에도 정이 끌리는 농촌학교의 유정한 자리였다. 마치 홍

해재령리의 오후와 라일

비전 향복의 그림 같았다.

«매일 보는 학교이지만 생각이 깊어집니다. 꿈이 많이 들어온 학교를 지어준 것이 어떤습

니다?»

순간 리당위원회의 얼굴에 활

한 미소가 어려웠다. 큰 농장살

림을 맡아온 어려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지만 우리 당의

후대 사랑을 전심으로 달벼락 농

장사체의 힘으로 새 교사를 건

설해 주려는 그 마음은 얼마나

웅심 깊은 것인가.

그렇게 시작된 학교건설이었

다. 하지만 모든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봄부터 가을까지 전후에서 전

두로 이어지는 바쁜 농사일을

하면서 농장사체의 힘으로 땅을

각오와 일정으로는 어렵도

없었다. 하지만 후대 농사를 위한 일을 국사종의 국사로 내세우는

초급반교사에 대한 대

보수가 제기되었던 것이다.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로

나왔던 그들은 쉬어 자리를 뜨

지 못하고 오래동안 교사연수를

돌아보았다.

지난 기간 여리민 보수를 하

었다지만 건설한지 오래된 건물

이다보니 설사 대보수를 한다고

해도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학

교로 되기 어렵다는 것이 불보듯

명백했기 때문이다.

그나마 초급반교사는 본교와

떨어져 있어 교원들과 학생들이

체육시간이나 실습시간에는

그리고 오가며 블루스를 느끼고 있

다는 것 이들이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였다.

«이무때도 땅에 기석으로는 알

리겠습니다. 둘이 많이 풀어도

새 교사를 지어준 것이 어떤습

니다?»

깊은 생각에 놀라운 판례위

원장의 이야기였다.

순간 리당위원회의 얼굴에 활

한 미소가 어려웠다. 큰 농장살

림을 맡아온 어려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지만 우리 당의

후대 사랑을 전심으로 달벼락 농

장사체의 힘으로 새 교사를 건

설해 주려는 그 마음은 얼마나

웅심 깊은 것인가.

그렇게 시작된 학교건설이었

다. 하지만 모든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봄부터 가을까지 전후에서 전

두로 이어지는 바쁜 농사일을

하면서 농장사체의 힘으로 땅을

각오와 일정으로는 어렵도

없었다. 하지만 후대 농사를 위한

일을 국사종의 국사로 내세우는

초급반교사에 대한 대

보수가 제기되었던 것이다.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로

나왔던 그들은 쉬어 자리를 뜨

지 못하고 오래동안 교사연수를

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이들의 목표였다.

판례위원장이 직접 정양파와 여러

지역들을 찾았더니 잘 꾸려진

학교들을 돌아보고 교육위원회에

까지 찾아갔다.

자기 히의 농장원자리를 계

율용한 교육조관과 환경을 마련

하기 위해 아울러 글에 쓰는 학

교도를 되기 어렵다는 것이 불보듯

명백했기 때문이다.

그나마 초급반교사는 본교와

떨어져 있어 교원들과 학생들이

체육시간이나 실습시간에는

그리고 오가며 블루스를 느끼고 있

다는 것 이들이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였다.

농장원자체의 힘으로 새 교사를

건설할 것을 결심하고 밭이 달도록

여러나라는 이를 그들이

농장원군들에게 면수원기였기

때문에 철원군들이

농장원군들에게 면수원기로 대

교수를 했던 조직사업으로 내용

이었다.

농장원군들의 마음속에는 농

사일과 함께 언제나 학교건설이

자리잡고 있었다.

모내기 전후로 농장을 보장

하기 위해 농장원군들이

농장원군들에게 면수원기로 대

교수를 했던 조직사업으로 내용

이었다.

농장원군들에게 면수원기로 대

보한신력사부
불관 관장 김영
숙은 우리 선조
들의 창조적 지혜

실화

애국의 종소리

해가 비친 옛 종묘에서 밭길을
유명 촉였다.

『이 좋은 우리 나라 5대 명종의 하나로서 세금과 금강산의 유명 사이에 있던 종입니다. 조선봉건왕조 초기 종의 특징들을 잘 갖춘 이 종의 높이는 2.1m이고 질량은 7.2t입니다. 지난 경제부령 당시 미제의 야수적 쪽족단행으로

금강산의 유검사가 계획으로 한 후에 도적으로 남아있던

유검사들은 민족문화유산보호사업에 언제나 각별한 관심을 들려

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정군님의 크나큰 은정에 의해

그 후 유교학자박사박물관에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3년전에

우리 박물관은 한 전쟁로병이 찾

아왔습니다. 놀라게도 그 전쟁

로병은 전쟁때 이 흥을 구출하는

전투원에 참가하였던 전투원들의

한사람입니다. …』

60여년전에 종종 출작전에

참가했던 도병이 수도 경양에서

살고 있다는 만가운 소식은 나로

하여금 한시마비 그를 만나보아야 하겠다는 뜻으로 충동을 불러

일았습니다. 민족유산보호지도국의

책임일꾼을 통해 동강구역 청

류3동에 있는 김성남전쟁로병의

집주소를 알게 된 나는 며칠후

그의 집을 찾았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세수유체를 잘 보존관

리하여 인민들에게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줄수 있

으며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한민족 문화, 우수한 민

족문화를 계승발전시켜나갈

수 있습니다. 』

우리 8·4 살인 김성남전쟁로

병은 전쟁당시 금강산지구에서

싸우던 어느 한 구분대의 선동원

인 당시에 전투소보원이었다.

미래에 백성을 인 이제 날의 선

동원은 전쟁의 마지막에 유검

사총을 구출하면 잊지 못할 그 나

날에도 추억의 노를 떠나겠다. 』

* * *

주체 4·2(1953)년 3월 어

느날 적포탄이 빠없이 날아와 머

지는 최전연초소에 도착한 부대

참모장이 즉시 우리 소대를 정도

의 한족구석에 침입시켰다.

전선 사령부의 전투소보원 표정은

근엄했다.

『참모장동지의 윤쑤를 갈자!

통보를! 날 따라 앞으로! 』

소대 전투원들은 상황하게 전

사한 참모장의 복수를 부르짖으

며 깅도밖으로 헤쳐나가 저들을

제수여하니 소대장은 세워 목

소리가 깅도벽에 때렸다.

『참모장동지의 윤쑤를 갈자!

통보를! 날 따라 앞으로! 』

우리 소대는 그날 위험한 대

전투에서 전투원들에

여기까지 침입시켰다.

전선 사령부의 전투소보원 표정은

근엄했다.

『여기까지 침입시켰다.

우리는 차례로 만든 도랑통쪽

한들의 도로화선에 불을 탔다. 현

속 적들을 향해 내리굴렸다.

회약과 고지주변에 무수히 박

혀있던 파편과 각물을 냉어서 만

는 도랑통쪽을 충돌하는 기세등등

여서 물리온전 적들에게 푸리죽을

을 암기하였다.

『우리에게 유품사총을 저들에

게 끌어온 것은 기적이었지만 그

보다 놀랄게 현대의 차세대

전쟁로병이었다.

그것은 기적이었지만 그

